

성별	남	나이	57세	직종	기계실 작업자	직업관련성	있음
----	---	----	-----	----	---------	-------	----

## 1. 개요

김○○은 2002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D사 소속 근로자로 유통센터 건물의 기계실 주임으로 일을 하였다. 퇴사 후 2010년 8월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 2. 작업환경

김○○은 군 제대 후에 4-5년간 용접 일을 하였다. 30대에는 도소매업종에서 점원으로 근로를 하다가 장비수리업종에서 2년간 일을 한 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주로 하였던 D사에 2002년에 입사하여 기계실에서 관리, 정비업무를 하였고 2010년 7월 퇴사하였다. 하루 근무시간에 평균 11번 정도 기계실에 출입을 하고 정기 출입시에는 15분/1회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기계 고장이 발생하는 등의 사건이 있으면, 최대 8시간 동안 근무한 적도 있다. 빙축열 냉수 펌프 소음(1대: 78.1 dB(A), 3대: 81.1 dB(A)), 빙축열 냉각기 소음(1대:95.3 dB(A)), 터보 냉각기 소음(1대:95.3 dB(A), 2대:125.3 dB(A)), 터보냉각기 2대에 빙축열 냉동기 1대의 소음(135 dB(A)) 추정 결과가 나왔다.

## 3. 의학적 소견

2009년도에 당뇨병을 진단받고 당뇨약 복용 중이다. 입사당시 실시한 청력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기계실 같은 잡음이 많은 곳에서는 보청기를 착용해도 대화가 되지 않아 청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2006년 H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받고 귀마개 착용을 하였다. 입사 후의 청력검사 결과(4년:좌/우 60/53dBHL, 8년:좌/우 72/68dBHL)로 난청 진행정도가 심하여

졌음을 알 수 있다.

#### 4. 결론

김○○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 8년간 냉방설비로 인한 소음에 노출 되었으며,
- 작업환경노출수준이 1일 130dB(A)이상으로 추정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